사회복지학과. 2011832501. 유태석

경험을 버려라

차 례

1,들어가는 말
2,멀고도 가까운 미래 2064년 경희사이버대학의 모습과 학생들의 삶
3,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성공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고 공자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평생 익히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평생대학원이나 노인대학, 주부대학 등 각종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또한 이전의 경험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익히기 위해서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밀리게 되며 가만히 있고자 해도 나아가지 않으면 제자리조차 못 지키는 형상이 될 것이니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간다. 그 꿈이 황당하고 무의미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꿈을 꾼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며 희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해도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맹랑하다 해도 상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모두가 빅부라더즈의 감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으로 그렸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피신할 곳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피할 곳도 없이 모든 일상들이 CCTV 속에서 감시를 당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정답이 없으니 그것이 불행한 일이다, 또는 아니다 라고 답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감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조지 오웰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기 위해 나가 보자.
먼저 미래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학교 그러니까 경희사이버대학의 미래로 날아가 보기로 하자.

2. 멀고도 가까운 미래 2064년 경희사이버대학의 모습과 학생들의 삶

우리의 경희대학 타임머신은 눈 깜빡 할 사이 지구를 두 바퀴 돌더니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정원에 새처럼 가볍게 날아 앉았다.

벌써 많은 자가용 헬기들이 풍선처럼 가볍게 날아서 옥상과 헬기장 공간에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지금 막 도착한 헬기는 날개를 접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차림의 학생들이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MT에 참석한 것이다.

호주에서 온 학생은 이어폰을 꼽고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알아듣고 자기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폰 덕분에 자연스럽게 애기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캠퍼스의 모습은 원격 조정에 의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경희의료원의 오래된 건물은 철거되어 심풀하고 깨끗한 백 평 규모의 병원 모습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헬기주차 공간과 정원으로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우리에게 강의하던 강의실은 모습을 감추고 어느 인테리어 전문가의 작품으로 꾸며진 럭셔리한 강당의 모습으로 변해 소형 하나와 대형 강의실 하나만 남아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간소화로 사회복지를 강의하고자하면 언제든지 사회복지현장으로 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며, 다문화시대의 사회를 강의 하고자하면 교수님은 예전에 책을 들고 강의 하던 식으로 간단한 장비하나만을 손에 들고 직접 현장을 오가며 자유롭게 강의를 하고 있다. 아니 다문화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세계화는 우리의 개념일 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이념 하다못해 인간의 정체성마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었다.

일본은 30분이면 초고속 헬기로 갈 수가 있고, 미국도 5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고속화 비행기가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오가고 있으며 프랑스나 독일 또는 유럽 각지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초고속 열차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 예전의 지구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버렸고.

또한 서울에서 다량의 비가 쏟아지면 자동펌프가 작동해서 지하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부족한 도시로 연결이 되고 있고, 물이 남을 경우는 바다로 송출하는 시스템의 세상이 된 세상이고 보니 사람들 이동의 자유는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니 부산에 살고 있는 민주 씨는 자기의 취향에 맞는 특강을 듣고 자 서울로 자가용 헬기로 20분이면 도착하는 학교를 종종 온다. 아름다운 나무로 꾸며진 우리학교의 캠퍼스를 걸으며 목마르면 귤이나 아열대 식물들의 열매로 목을 축이고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고 있으며, 모처럼의 여유를 부려 보기도 하는 것이다.

교수님들은 테이블과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 자유로이 자가용 미니 헬기를 타고 다니시면서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하고 있고, 유학 온 동남아시아 친구들은 어렵게 한국어를 공부하던 시대가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자유로이 버튼을 눌러 이어폰으로 한국어를 자기 나라 말처럼 듣고 있다. 그들 또한 질문도 자기 나라 말로 하지만 번역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상대방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해외에서도 간단한 스마트폰으로 원격 강의를 듣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e- book으로 독서를 하고 있지만 세종실록이며, 한글 창제 자료 등의 귀한 소장품들은 아직도 페이퍼 북을 고집하는 몇몇 학생들과 교수님의 요청으로 백 평 정도의 공간은 간신히 남아서 도서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절반만 페이퍼 북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경희 그룹의 유명한 캠퍼스는 아름답게 정돈이 되어 있고 동쪽에 있는 동산에는 이미 아열대를 알리는 식물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바나나 열매는 몇 해 전부터 우리학교에서도 따 먹고 있는 과일이 되었다.

곳곳에 동아리 모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햇볕에 칼라풀하게 글자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우주여행을 알리기 위한 동아리가 눈에 띈다.

아니 평소에도 우주여행은 엘리베이터로 다녀들 오는데 왜 요란인가 했더니 그곳에서 우주답사여행 동아리 커풀들의 결혼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헬기로 10시간을 이동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피로연 후에는 우주에 있는 오렌지동산을 등반한다는 것이었다. 등반 후에는 화성에 가서 화성의 남성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며, 화성 여행 후에는 금성에 가서 금성의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돌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려니까 신발은 가볍고 물 빠짐이 좋은 아쿠아 신발을 준비하고 음식은 간단한 크로렐라로 된 알약을 먹어야 한다.

크로렐라는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을 듬뿍 함유하고 있으며 영양가는 높지만 칼로리가 높지 않아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어서 우주여행을 일주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인기 좋은 식사 대용품이 되었다.

학생들은 우주여행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손목에 차고 있는 노트북을 통해서 공부를 하며 시험도 자유롭게 하루 안에 보기만하면 되는 비동시평가의 시험을 치루고 있으며 컨닝을 한다든지 편법을 저지른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양을 쌓기 위한 공부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법이나 부정행위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 뿐이다. 또한 남에 대해서는 별로 참견한다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으며 언어의 경제성을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운이 나쁘게 백 살이 넘은 할머니는 젊은이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내가 대학 다닐 때의 언어는 이미 절반이 바뀌어서 귀도 어둡고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투덜대며 신에게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노인은 고령화시대의 도래를 치를 떨며 의료서비스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별로 없이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삶을 설계하고 소양을 쌓는 일에 몰두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 사회에서 맡은 역할은 어떻게 하면 너무 편하지 않고 활기차게 일을 하면서 너무 오래 살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 고령화를 보이고 있으며, 젊은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있고 시험관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있으므로 노인들을 의학의 발전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다.

입학 시기가 되니 경희대학교 근처에는 자가용 헬기들이 잠자리 떼처럼 몰려오기 시작했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도 되지만 학생들은 여유를 가져 보고자 학교를 온다는 것이다.

학교 건물은 동그란 돔으로 되어 있으며 하늘에서 보면 별처럼 예쁘게 빛나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인상적인데다 주위의 조경은 초록별을 연상하게 하며 각종 유실수로 주위를 조경해 놓은 덕분에 학생들은 목마르거나 공부 중에 비타민 부족으로 졸리면 자연스레 교실 밖으로 나가 몇 개의 과일로 요기와 영양 보충을 한다. 그러니 모두들 우리 학교의 전자기기 시스템의 우수성과 환경의 풍요로움에 취하고 있으며 와서 둘러보는 것을 즐기고 입학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도 경희사이버대학의 위상과 캠퍼스의 아름다움은 물론 전자기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부하다 피곤하면 경희의료원에서 원격 조정으로 치료까지 해 주고 있으니 그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모두 알려져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드림랜드 같은 우리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꿈이 되고 있다.

교수진의 실력은 전 세계가 비슷하고 원하기만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의 격차는 오로지 학생들의 창의성과 연구의 발상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3. 나가는 말

우리는 50년 후의 우리학교에 대해서 재미있게 상상을 해 보았다 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상상은 현실로 오고 있다고 보겠다. 사이버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강의실은 필요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도서관도 e-book으로 대체 되어 가고 있고 또한 동아리들도 이제는 현실성이 없는 동아리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공부하는 방식도 암기보다는 스마트폰에서 미쳐 암기되지 않은 말들은 찾아서 볼 수 있으니 페이퍼 사전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또한 계산도 척척 해내는 컴퓨터가 있고 예전에 도서관에서 찾아보던 학문들조차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척척 알아내는 수준이 되고 보니 큰 규모의 도서관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등록금도 반값을 외치고 있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다. 우리는 통일이 되어서 많은 국방 예산 금액을 교육비에 투자해서 유럽의 대학처럼 돈에서 자유로운 대학이 되도록 정부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교육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니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다.

또한 지방은 물론 서울에도 몇 개 대학만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평준화도 머지않아 가능한 얘기가 될 것이다.

모든 대학이나 교수들 간의 실력 격차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보며, 학생들은 환경이 좋은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지금도 외국에서 우리학교를 지원하고 원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 앞으로 50년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의 세계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돈이 자연스레 오가듯이 학문과 지식도 자연스럽게 경계를 무너뜨리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예전의 대학은 정의와 이념의 도가니였다면 지금의 대학은 자기중심의 대학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니 앞으로 50년 후의 대학은 더욱더 자기중심의 어찌 보면 이기주의식으로

변한다는 것은 불을 보는 듯하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 예전에는 법을 무시하고 기득권자들이 편법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했지만 지금은 물론 앞으로는 더욱 더 법치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산다면 크게 불이익을 당할 일이 적어질 것이고 무전유죄 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대학생들은 자기들의 개발과 취미와 현실성 있는 법을 만들려 노력 할 것이며 그 법은 모든 이들이 불만 없이 자기들의 이익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대학생들의 입지는 모든 국민의 일원으로 자기의 맡은 바를 해내는 조용한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뉴턴의 말처럼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거장들의 어깨위에서 세상을 보는 형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기에 50년 이 후의 세상은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리라 생각 한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더구나 우리학교의 위상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공부와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힘들더라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는 경험을 통해 계획을 늘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